

TRANS- HUMANITIES

Title :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The Life and Death of Jews as Transnational Strangers:
Comparative Textual Analyses of Nazi Concentration
Camp Survivors**

Author(s) : 최윤영 (CHOI Yun-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29-58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최윤영

1. '초'국가의 자유, '초'국가의 불안

최근 문학논의에서 '후 post-'의 물결이 지나간 이후, 혹은 그 영향 속에서 '탈 ent-(de-)', '초 trans-'로 이어지는 경계 넘기와 가로지르기의 물결이 거세다. 주로 영미권 문화이론의 영향을 받아 탈경계, 탈민족, 탈국가, 혹은 초경계, 초민족, 초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실제로 전 세계가 급속도로 지구촌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기존의 경계들이 해체되거나 의미가 약화되면서 이론의 적실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기존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으로 작용했던 민족이나 국가, 인종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그 너머의 혹은 초극의 사고와 삶에 대한 논의로서의 'ent-'이나 'trans-'는 대체로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며 해방과 자유의 계기로 해석된다. 이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탈경계, 초경계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최윤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www.kci.go.kr

이다. 한편으로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경계 긋기는 항상 행해졌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임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경계가 경계 안의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순기능도 가졌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탈’-운동들이 당사자들에게 가져오는 정체성의 불안과 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글로벌한 세계는 “외부 없는 세계”로 재편되고 근본적인 경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경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환 273).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내부 경계를 넘나드는 최근 변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전문지식과 언어 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며, 이에 반해 정치적 약자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은 집단적인 노동이민이나 결혼이민의 형태로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국경을 넘고 있다. 백은 사적 영역에 주목하여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돌봄의 전 세계적 순환을 지적하는 가운데 제1세계의 가정 일을 제3세계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주목하며 특히 제3세계의 엄마 없는 가정의 생성에 주목한다(154). 아파두라이의 경우에는 보다 진지하게 이러한 탈경계의 시대의 한 ‘풍경’으로 생겨난 ‘초지역적인’ 난민수용소 등을 관찰하고 있다(335). 지구화와 세계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계지대와 경계의 그늘을 생산해내고 있다.

2. 초국적? 무국적? 유대인

이 글에서는 탈국가, 초국가의 가장 어두운, 극단적인 사례로 독일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대인들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초국가, 탈국가 과정은 타자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

서 다르다. 이 글에서는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폭력과 비극이 당시 가장 문명화된 세계로 자처했던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경계 긋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으며 해당자들은 이러한 타자가 규정한 새로운 정체성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한 ‘비인간의 조건 *conditio inhumana*’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의 대상을 유대인 생존자들의 수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국내에서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이 비교 작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화의 시대에도 인권의 사각지대, 그늘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과거에 대한 작업만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나치는 독일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소환하였다. 이는 결코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자명한 사실이 아니고 이들이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 150년간의 독일-유대 공생기간에 획득했던 국가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다시 경계를 초월하여 이방인으로 규정한 역사적 사회적 사건이다. 이들은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의미에서는 ‘탈국가적’ 이방인이지만 당시 해당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걸쳐 분포해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국가 경계를 넘어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치는 유대인들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고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복잡한 집단임을 깨닫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타자화 이데올로기 전략을 동원하여 결국 “이방인 적”으로서의 유대인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해냈다.

근대 유대인들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현실적 경험에 직면한 그들은 오히려 극히 다양한 표면적인 현상들 뒤에 혐오스러운 본질적인 유대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화적 주장을 펼쳤다. 문화적으로 동화된 지적인 유대인들은 근대성이라는 적을 구현하는 존재였고, 종교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이미지에 잘

맞아떨어지는 존재였으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은 “착취자본”과 자유주의의 모델이었고, 유대인 사회주의자는 혐오스러운 “볼셰비즘”과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는 존재였으며, 동유럽 계토의 이질적인 문화로부터 독일로 건너온 유대인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적, 식민주의적 우월감을 표출하기에 적절한 공격 대상이었다(포이케르트 321).

존슨은 나치가 유럽에 흩어져 살던,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니고 다양한 국적을 지녔던 유대인들을 한 이름으로 강제수용소에 보낼 때 반유대주의와 같은 자연발생적이고 - 이 시기에 극단적으로 고조된 - 감정적 요소들만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법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폭력을 집행하였음을 지적한다.¹⁾ 근본적으로 고찰해보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유대인의 권리 박탈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조처들이 마련되고 집행되었다. 독일에서는 1935년 뉘른베르크법이 시민권 박탈 작업의 시작이었다. 독일 내 유대인의 독일국적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인의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고 유대인의 공무 담임권을 박탈하여 유대인을 이등시민으로 만들고 독일 국경을 벗어날 경우 무국적자로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는 유대인 배제와 차별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1933년의 비아리아인에 대한 대상법령, 1935년의 제국시민법 등)를 거쳐 ‘유대인’을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에게 해당되는 여러 규제 조처들을 차례차례 발표하여 이주와 출국을 금하고 집단 수송과 집단 노동을 준비하였다. 나치의 반유대주의가 ‘생명

1) 존슨의 경우 일반적인 반유대주의 감정은 타자에 대해 생겨나는 자연적인 감정으로 보고 있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3』, 김한성 옮김, 서울: 살림, 2005, 145 이하 참조. 그러나 유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타자에 대한 감정은 늘 자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강도에 있어서도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적 이라기 보기는 힘들며 있다 하더라도 계몽의 작업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극단에 다다른 것은 1942년 1월 20일의 '반제 회담'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유대인 절멸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독일이 점령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민권 박탈 조처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독일어 관용 표현처럼 "새처럼 자유로운 vogelfrei" 그러나 "새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즉 이제 이들은 강제 이송되고 학대받고 살해되어도 권리가 없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는 무국적이 내포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독일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은 "강제 이송되는 날 전에, 혹은 적어도 그날에 시민권이 박탈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나치의 극단적인 경우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독일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포고는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3제국에는 - 물론 폴란드 수용소로 강제 이송된 자들도 포함해서 - 그 지역을 떠난 모든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상실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번스타인 132).

아감벤은 수용소를 정치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짓는데, 김용우는 아감벤이 저서 『호모 사케르』에서 수용소의 탄생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정치적·법적 구조를 탐구하고 있다고 본다(299). 아감벤은 고대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생사를 다루는 생명정치와 더불어 논하고 근대에 있어 국가의 주권이 영토, 국가, 민족뿐 아니라 예외상태를 통해 유지됨을 지적하면서 예외상태를 체계화한 집단수용소 문제가 생명정치 담론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 바깥의 보호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들을 '호모 사케르 homo sacer'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세속적인 존재와 구별되는 신성한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 의미로 종교 및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다. 때문에 주

권 정치의 산물인 예외상태에 놓인 이들을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호모 사케르들은 별거벗은 존재였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와 몸과 삶이 어떤 인간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서길환 188). 유럽의 유대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처하게 된 비정상적인 상태, 탈국적, 초국적의 극단적인 무방비상태를 발견한다. 한나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권리를 잃은 자, (유대인들: 역자주)의 곤경은 그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이상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이 억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억압조차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소 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그들의 생명권은 위협을 받았다. 그들이 완전히 ‘불필요한’ 상태가 되기만 한다면, 만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은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치조차도 처음에는 모든 법적지위(이등시민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리고 계도와 강제수용소로 몰아넣어 살아 있는 자들의 세계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유대인의 절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스실을 가동하기 전에 그들은 그 근거를 검토하여 만족스럽게도 어느 나라도 이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핵심은 완전한 무권리의 조건이 삶에 대한 권리가 의심받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번스타인 137).

3. 수용소 생환자들의 수기와 연구사

디몬트는 『유대의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유럽 근대 유대인의 이입사와 이주사를 다섯 장후(서유럽의 환상, 동유럽의 퇴화, 아메리카의 기억 상실, 나치스의 악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성)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www.kci.go.kr

데(114), 이들은 유럽 각 주류 사회의 내적 사정에 따라 관대히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대규모 포그롬과 함께 추방되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유대인의 역사는 경계 짓기와 경계 허물기, 다시 경계 짓기에 대한 산 역사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럽의 근대 민족 국가가 차지했던 양가적 위상과 의미이다. 나치의 폭력과 광기의 가장 큰 희생자 집단이었던 유럽의 유대인들에게 독일, 오스트리아, 혹은 폴란드라는 근대적 민족국가는 폭력과 억압 혹은 배제의 틀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즉 근대의 민족국가와 그 경계에 대한 평가도 그 복잡한 맥락을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00년간 유럽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 유럽의 민족국가는 이방인으로서 떠돌아다니거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폐쇄적인 계토에 살던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시민권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준 국가적 보호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기독교 사회가 근대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조직을 갖추고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새롭게 역동적으로 구축할 때 이는 유럽의 소수민족 유대인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근대 이전까지 유럽 사회를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삶의 거처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코즈모폴리탄의 원조로도 볼 수 있고 탈경계적, 탈국가적 이방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유동적 삶의 위험을 보여주는데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민족국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개인적 해방과 자유를 위한 보호의 틀을 발견했던 것은 주류그룹 뿐 아니라 주변그룹 혹은 소수그룹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초 프랑스라는 타민족(국가)의 침공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줄 틀을 독일제국이라는 민족 국가에서 보았듯이 계몽주의의 여파로 시민으로 편입되었던 유럽의 소수 민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졌다. 이들 역시 계몽의 여파

로 신문과 언론의 보급과 발달과 더불어 같은 사상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라는 새로 형성된 ‘경계’는 19세기에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무소속의 상태에서 구제해주고 보호해주는 틀로 기능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계토에 살던 이방인들이 유럽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버리고 당시 형성되던 민족국가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갔고 실제로 20세기 초에 이들은 각 민족국가에 편입이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들은 각 민족국가의 ‘국민’으로서 전장에 소환이 되고 또한 전사한 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독일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존슨 117). 물론 이들의 주류사회 진입은 환영을 받은 것만은 아니고 이들의 동화와 더불어 반유대주의는 새로운 양상으로 유럽사회에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회와 도시 중산층 편입의 기회를 부여한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국민국가 형성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때문에 나치로 인한 유대인들의 탈국적화, 무국적화는 그들의 지난 150년간의 동화와 공생 노력을 무(無)로 돌린 것이다.

4. 수용소 생존자들의 글쓰기 작업과 그 의미

나치 시대의 범죄나 홀로코스트, 쇼아, 혹은 전후의 과거극복의 문제는 독일문학의 주요주제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의성 있는 문제로 다각도로 다루어졌다. 주로 사회적, 철학적, 문학적 맥락에서 논의되었고 문학의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인 유대인의 시각에서가 아닌 주류사회인 독일인 작가들의 시각에서 고찰되었다. 이때 이 작가들의 텍스트는 전후

반성과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고발문학’과 ‘비판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흐무트의 『대리인』(*Der Stellvertreter*)에서 시작하여 파울 첼란, 하인리히 뵐을 거쳐 최근에 들어서는 W. G. 제발트의 작품이나 베른하르트 슬링크의 작품 『책 읽어주는 남자』(*Der Vorleser*)가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가장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남은 수용소 생존자의 기록들은 독일에서도 그리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생존자의 글들 중에서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Se questo è un uomo*, 1947), 엘리 위젤의 『나이트』(*La Nuit*, 1958), 장 아메리의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1966), 루트 클뤼거의 『계속 살아간다』(*weiter leben*, 1992)가 가장 대표적인 생존자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아메리나 프레트 반더(Fred Wander)의 작품들이 전집의 형태로 재출간되면서 이들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독일 일부와 영미권 독어독문학계에서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이주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비나 위젤의 텍스트는 비교적 일찍 번역이 되어 소개가 되었고 꾸준히 읽힌 편이나 아메리의 경우 2010, 2012년에 와서야 뒤늦게 두 텍스트가 번역이 되었고 클뤼거의 경우에는 아직 번역도 되어 있지 않고 논문만 몇 편 나와 있을 뿐이다.²⁾ 아직까지 각 민족문학과 그 연구의 경계를 넘어 이들 생존자들의 글을 전체적으로 혹은 비교하면서 다룬 논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의 수기는 수용소 해방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나오지 않았다. 보통 이 기간을 ‘침묵의 공모’ 기간이

2) 클뤼거에 대해서는 류은희, 「홀로코스트 문학에서의 기억과 역사: 루트 클뤼거의 『생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1 (2003): 49-69; 서유정, 「독일인과 유대인의 새로운 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성적 시도 - 루트 클뤼거, 『삶은 계속된다』」, 『독일문학』 111 (2009): 172-189 참조.

라고 부른다. 프리모 레비의 경우가 1947년에 수기를 써서 출판했으나 너무나 끔찍한 현실을 다루어 전후의 폐허 현실에서 외면을 받다가 1958년에 다시 출판이 되었을 때에야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다. 실제 독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과거 극복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60년대에 들어와서 아우슈비츠 재판이 연속적으로 열리면서 부터의 일이고 68혁명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인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당했던 인간 이하의 삶을 증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다. 대체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끔찍했던 체험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데 너무나 악몽 같던 삶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때 희생자의 주저함을 피해자로서 가지는 일반적 수치심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서경식은 나치의 희생자인 레비와 아메리를 일본 제국주의와 근대 국가독재의 희생자들과 연결시켜 고찰하면서 희생자가 갖는 트라우마를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생존자 수치감으로 표현되는 트라우마를 “기억으로서의 수치”, “살아남은 자의 수치”, “인간이라는 수치”라고 명명하고 있다(268-269).

수기들의 공통점은 수용소 이전의 삶의 묘사에서 시작하고 유대인으로 소환되는 순간을 포함하여 수용소에서의 삶과 죽음을 주로 전하되 개인적 차원에서 과거를 회상한다는 데 있다. 수용소 이전 시절에 대한 회상은 대부분 이어지는 수용소의 삶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대부분 수용소의 삶만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수기를 구성하고 그 전후의 시간적으로 더 긴 일반인으로서의 삶은 대개 별도의 텍스트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수용소의 삶의 단계를 다른 단계의 삶과 같이 섞어 회상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아메리의 경우 『장소들』(Örtlichkeiten)에서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대해 알게 되고 저항운동에 투신하는 과정을 여러 도시들(비인 - 쾰른 - 엔트워펜 - 구르스 - 브뤼셀 - 취리히 - 런던 - 파리)을 묘사하면서 연대기적으로 열거한다.

이에 반하여 아우슈비츠 체험기는 따로 분리하여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에서 집중적으로 회상한다. 이러한 분리 경향은 1992년에 출판된 클뤼거의 글에 와서야 비로소 극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녀는 아우슈비츠를 전체 삶의 한 단계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서술의 중심이 아우슈비츠에 놓여있더라도 클뤼거는 비인의 유년시절과 아우슈비츠에서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민, 다시 독일에서의 삶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 텍스트 안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글을 쓰는 것, 증언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의미를 스스로 성찰한다. 물론 글을 쓰는 첫 번째 목적은 수용소의 실상을 전하는 것이다. 위젤의 말처럼 이 인간사의 파국을 기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억은 속죄를 의미하고 또한 내일의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방인은 없다』 163). 아메리의 글에서는 그 중 ‘원한 Ressentiment’ 개념이 두드러지는데 그는 이 감정이 해당 피해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강변한다.

더불어 아메리는 전후 유대인 일각에서 주장된 화해의 노력을 의심의 눈길로 보는데 이들이 화해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들조차도 직접 수용소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안미현 190). 대체로 수용소 생존자들은 전후의 사회가 이러한 끔직한 인간사를 망각하는 것에 대하여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메리의 경우 과거극복과 관련한 서독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60년대, 70년대의 과거극복 분위기가 변하고 다시 보수적 사회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던 반더의 경우에도 비인사회에 다시 커피향기가 퍼지고 사람들이 이전의 삶에 복귀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잊는 것에 절망하여 오스트리아를 떠나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위젤의 경우 “잊는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모욕적이기도 하다.”(『나이트』 20)고 말하고 계속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는 지워지고 망각 속으로 사라진 듯”(16) 보이고 시간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과거를 위하여 새로운 기억을 모색하는 단계에 다다랐다. 현재 이들 생존자 세대가 점차 고령이 되고 사망하면서 기억의 양식도 바뀌고 있는데 아스만이 말한 바 있는 생존자의 ‘커뮤니케이션 기억’은 점차 ‘문화적 기억’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이행 시대에 이제 폭력과 학살의 체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는 생존자들의 글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수용소 생존자들의 수기는 “끓주림, 갈증, 공포, 수송, 선별작업, 불, 굴뚝”(위젤, 『나이트』 10)을 내용으로 다루고 희망의 빛이 조금도 없었던 파국의 시대에 대한 절박한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저자들은 대체로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체험을 있는 그대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는 ‘자전적 수기’의 형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memoria’와 ‘mimesis’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생존자 글쓰기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진정성을 담은, 신뢰할만한 진실한 글쓰기로 간주되어 왔다.

예외적인 것이 프레트 반더의 『일곱 번째 우물』(*Der siebente Brunnen*, 197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서독이 아닌 동독에서 출판이 되었고, 드문 동독의 유대인 수용소 생존기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이제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출판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작가들과 차이가 나는 글쓰기 방식에 있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이 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유럽의 전통적인 하시디즘적, 설화적 이야기로 형상화되어있어 이는 작품의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5. 수용소의 삶과 ‘비인간의 조건’

1)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자국뿐 아니라 점령국에서 유대인들을 소환했을 때 당시의 유럽 유대인들은 크게 동부유대인과 서부유대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구분으로 실제 유럽 내에서 유대인들의 이동이 많았던 현실을 고려해보면 분명하게 구분하기 힘들며 ‘이상형 Idealtypus’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유용성은 나치가 국가나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를 무화시키고 이들을 하나의 이름 ‘유대인’으로 호명하였을 때 보여준 반응이 다른 데에 있다.

동구권의 동부유대인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핵가족 혹은 개인생활을 했던 서부유대인과 달리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유대인들끼리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종교,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19세기부터 ‘하시디즘(경건한 자라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유대인 전통회복 운동은 동유럽에서 일어나 나중에는 서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마르틴 부버가 대표자라 할 수 있다. 동부유대인이었던 위젤의 자전적 수기 『나이트』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유대인 수기와 구분이 되며 저자가 고향인 시골마을 시케트에서 겪은 일들을 묘사한다. 주인공인 엘리는 “철들 무렵부터 탈무드를 공부하고 카발라에 심취하는 등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일찍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23) 소년이었다. 마을에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시되었다. 1942년 유대인 추방의 첫 단계로 헝가리 경찰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소집했을 때 마을의 모이쉐가 추방된다. 모이쉐는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구덩이를 파게하고 뒤에서 총격을 가해 집단 살인을 자행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 이 만행을

증언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마을 주민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이때 피난갈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대부분은 전세가 이미 독일에 불리하게 기울어 러시아가 이기고 독일은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44년 헝가리에 파시스트 정당이 정권을 잡고 독일군이 헝가리에 들어왔을 때에도, 실제로 마을로 들어와서 유대인의 자유와 이동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이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고 독일인도 인간이라는 낙관론으로 대응했다. 이들의 생명과 거주에 대한 모든 조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려왔지만 그 의도와 결말을 알 수가 없었다. 유대인의 노란별을 달고 살던 정든 집을 떠나 계도에 집단수용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도에서 가족열차로 강제이송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자신들을 태운 열차가 헝가리 땅을 벗어나고 독일군이 이들을 인계 받았을 때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는데 국경을 떠나면서 이들은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비르케나우에 도착해서 강제수용소의 불길과 유령처럼 보이는 수감자들을 보았을 때에서야 환상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된다.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권이 자신의 손을 떠났고 자신들은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거나 아니면 이 수감자들처럼 유령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눈앞의 총구 앞에서 아무런 이의도 항의도 제기할 수 없고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을 할 때에도 저항을 할 수 없었다. 동부 유대인 중 대다수는 강제소집과 이주, 이송에 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 순응하였고 많은 이들이 정보부족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 아직 종교에 대한 믿음도 강했고 휴머니티 사상에 대한 믿음도 작용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 상황을 회고해볼 때 저자 위젤은 독일인이 마을에 들어왔고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게트의 유대인들은 웃고 있었던 것”(39)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폴란드나 헝가리의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이들

은 대체로 자기 자신들의 처형 과정을 저항 없이 같이 집행했던 것이다. 나중에 생존자들은 이때, 즉 아직 탈출이 가능했었을 때 왜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명령에 순응했던가에 대한 진한 원망과 회한을 토로한다.

그에 반해 서부와 중부유럽에 살던 서부유대인들은 계몽주의 이후 적극적으로 유럽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참여하면서 세속화되었고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 대도시에서 살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식 생활에 동화되었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투철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박했다. 이들은 자신이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헝가리인, 폴란드인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경계 굽기를 통해 국가시민에서 이등시민으로, 다시 치외법권의 유대인으로 재분류되고 이송될 때의 반응은 동부유대인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완전히 오스트리아 사회에 동화된 아메리는 독일에서의 뉘른베르크 법이 공포되었음을 들었을 때에도 자신이 “그 법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대적이 되지 않았다.”라고 타자 정체성에 대한 이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에 동화된 프리모 레비의 경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주근깨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않았었다고 고백한다. 이탈리아가 독일의 동맹국이라 가장 늦게 유대인 소집이 시작 되었고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소집이 서서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는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비는 계속 화학자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차별법이 순차적으로 통과되자 자신이 소속되었다고 생각했던 주변세계가 점차 자신에게 등을 돌러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들 서부유대인은 유대인 정체성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조상들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갑작스레 부여된 이 유대인이라는 타자 정체성은 낯선 것이었다.

또한 대도시에 살던 서부유대인들은 공식, 비공식적 경로로 수용소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 때문에 경제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20여만 명은 초기에 유

렵을 탈출하여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남미 등으로 이주했고 경제능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도 가능하다면 나치의 입김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도피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시오니즘 운동도 확산되었다. 오스트리아 언론인 출신 헤르츨의 경우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보고 동화의 실패를 절감하고 시오니즘을 주창하고 팔레스티나로의 집단이주를 주창하였다. 아메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때문에 계속 다른 도시로 도피를 하면서 반나치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벌이다 체포된다. 프리모 레비의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반파시즘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힘으로써 파르티잔으로서의 즉결처형을 면하고 수용소로 보내진다.

그 외에 방랑하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들은 어느 고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갔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유럽의 대다수 가난한 유대인들은 유럽 땅에서 오랫동안 행상으로 또한 막노동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반더의 경우 동유럽에서 건너와 비인의 밑바닥 하층민 생활을 하였고 유대인들로서는 드물게 파리아로서의 계층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반더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히틀러가 열렬한 비인 시민의 환영 속에 입성하자 바로 파리로 도피한다. 그의 이야기 속에도 방랑하는 유대인이 자주 등장한다. 방랑하는 유대인들의 삶 역시 강제수용소에서 종결되었다. 동부유대인이든, 서부유대인이든,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유대인이든 차이는 모두 무시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제는 한 이름 ‘유대인’으로 호명된 것이다.

2) 개인 정체성의 상실: ‘비인간의 조건’

대부분의 생존자들의 수기는 수용소에 수용될 때까지 유사한 체계화

www.kci.go.kr

된 과정을 묘사한다. 크게 보아 집단 호명 - 이송 - (수용소) - 선별과정 - 강제수용소의 순서로 서술된다. 이들은 자신이 시민권과 생명권을 박탈당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은 다르다. 이미 공식, 비공식 정보로 알고 있던 서부유대인도 있고 혹은 이송의 순간이나 수용소 도착의 순간이 인식의 순간인 경우도 있다. 국적 없이 유대인으로 호명된 이들은 이제 밀폐된 가축용 수송열차를 타고 죽음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음을 절절히 체감하게 된다. 이제까지 반신반의했던 나치의 잔혹한 폭력과 폭행, 살인은 눈앞에서 나의 경우로, 나의 가족의 경우로 일어난다.

독일이 동부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1943년 이후 수감되어 노동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유대인”(레비 65)으로 선별이 된 경우에는 얼마동안 목숨을 더 부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나치의 반 유대인정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전체를 재편하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독일 민족의 핵심능력으로 노동능력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다. 선별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감자들은 바로 비르케나우의 절멸수용소로 보내졌고 선별을 통과한 수감자들은 3Km 떨어진 노동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수용소의 정문에 걸려 있던 구호 “노동이 자유롭게 만든다 Arbeit macht frei”는 이 경우 수감자들에게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유래한 이 표어는 사실상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절멸 이전까지 “노동을 통한 파괴 Vernichtung durch Arbeit”를 나치가 반유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음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노동은 더 이상 아렌트가 말한 바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비인간적 조건의 핵심이었다.

강제수용소의 수감자의 삶은 무소속 호모 사케르로서의 삶이다. 이들은 과거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혹은 나이의 차이를 모두 무시당한 채 ‘초국가적’, ‘초문화적’으로 ‘유대인’으로만 호명되고 생명권은

나치에게 넘어간다. 과거 유럽 각국의 시민권 소유자들은 수용소에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똑같이 취급된다. “대학교 수도 외과의사도, 심리치료사도 배우도 작가도 전문가들도”(위젤 『나이트』 89) 이제 모두 권리 없는 호모 사케르 유대인일 뿐이다. 이제 모두 수용소의 언어 독일어를 이해해야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도록 노동해야한다. 이를 이들 정체성의 탈영토화, 재영토화로 설명할 수도 있고 탈국적화, 초국적화, 혹은 무국적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선별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노동능력으로만 평가된다. 엘리 위젤뿐 아니라 루트 클뤼거는 노동자로 선별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었으나 다른 유대인 수감자들에게서 나이를 올려 말하라는 조언을 듣고 죽음을 면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이제 이들은 문화라는 의복이 벗겨지고 오로지 육체로만 평가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과정을 상징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겪는다. 모두 발가벗기고 머리를 삭발당하고 소독과 샤워를 거치고 이제 팔뚝에 수감자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게 된다. 이제 수감자들은 모두 초국적 이방인 유대인 수감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는 과거의 재벌도 크기가 맞지 않아 흘러내리는 바지 하나 때문에 노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고, 정신노동자인 지식인들은 “왼 손만 두 개인” 수감자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수용소의 보편언어인 독일어를 못 이해할 경우 생명이 위협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독일문화에 정통한 유대인 독어독문학자들은 나치에게 가장 큰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 육체의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노동자 그룹에 속하게 되면 굶주림과 피로와 절망의 수용소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졌다. 선별작업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레비는 수용소 도착 후 선별의 과정과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언어로는 이런 모욕, 이와 같은 인간의 몰락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거의 예언적인

www.kci.go.kr

직관과 함께 현실이 우리 앞에 고스란히 정체를 드러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 까락까지 빼앗아갔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들어준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갈 것이다(레비 34).

생명권을 타인에게 빼앗긴 수용소의 삶은 죽음보다 끔찍했고 때문에 루트 클뤼거의 어머니는 열두 살 난 어린 딸에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같이 전기 철조망에 뛰어들자고 제안을 한다. 인간 존재의 예외적 상황은 부모-자식 관계도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식에게 자살을 제안하는 착종된 관계로 변모시킨다. 프리모 레비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탈리아에서 파티잔으로서의 즉결처형을 면했지만 결코 이후의 삶이 죽음보다 낫지 않았음을 토로한다.

3) 개인의 말살과 저항

수용소에서의 삶을 다룬 글들을 읽어보면 수용소의 자의와 폭력에 자신의 생명권이 내맡겨진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순응이다. 이때 후자는 삶의 포기를 의미한다. 저항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무력저항이나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대인 말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이유로 바르샤바의 게토 저항 이외에는 이렇다 할 무력저항이나 집단저항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수용소에 도착해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을 때에도 이미 이들은 총을 가진 무리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신체에 내려진 처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생명권이 적들에게 넘어갔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정신의 작용에 관한 모든 질문은 주체가 굶주림과 탈진으로 죽어가면서 탈정신화될 뿐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탈인간화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36)라고 기술한다. 이 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소수들은 나름대로의 공통점을 기술하는데 기적과 같은 행운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저항, 즉 다시 말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통해서 살아남았다고 기술한다(레비 58).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슈타인라우프라는 한 수감자가 더러운 목욕탕에서 매일 몸을 닦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하시키는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똑똑하게 목격하기 위해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명의 골격, 골조, 틀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는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57-58).

레비는 수용소의 인간을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로 분류한다. 도처에 널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운명으로 다가 올 죽음은 또한 이 초국적 수용소 수감자들 모두의 공통된 운명이다. 그러나 이 죽음의 늪에서 익사하는 자와 구조되는 자가 있는데 구조되는 자는 바로 “동의하지 않는” 자이다.³⁾ 레비 스스로도 예외적 상태에서 살아남았음을 고백하지만 또

3) 레비는 수용소 내에서 생존자들은 기술을 가졌거나 권력자와의 관계를 통해, 즉 예외적 생존조건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기술한다. 그 역시 부나 공장에 유용한 화학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젤이나 아메리, 반더 등은 모두 일반적 수감자로서

한 살아남은 다른 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가장 힘든 나날에도 친구와 나는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각을 집요하게 계속 품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굴복 상태와 도덕적 타락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었다.”⁴⁾ 그 형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야기하기’도 이러한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하나이고 반더의 작품이 그 예이다.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동화적, 신비적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반더의 텍스트에서도 죽음의 텍스트의 주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아마도 삶은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속으로 압축이 될 것이고 침례화될 것이다. 어쩌면 삶은 에테르 같은 물질로 기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수대 아래의 시간이 존재의식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미화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삶을 경멸하는 자의 물레방아에 물을 대주는 것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죽는 것은 죽는 것이다! (115)

그러나 반더는 이야기를 통해서 수감자들을 다시 인간으로 승격시키고 있는데 나치의 정책과 달리 이들을 “개인”으로 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용소 번호가 아니라 원래의 고유이름으로 불리고 이들의 개인적 이야기는 화자에 의하여 기억이 되고 이야기되고 전해진다. 반더의 텍스트에는 이야기꾼의 두 층위가 있는데 바로 소설의 화자라는 이야기꾼이 그 하나이고 텍스트 내의 등장인물인 이야기꾼 멘델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이다.

죽도록 노동하였으며 극히 드문 생존자 그룹에 속한다. 이들에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4)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았다』 중 「젊은 독자에게 답하다」라는 글에서 한 말인데 서경식 40쪽에서 재인용.

매 두 번째 일요일 오후에 (우리는 한 달에 두 번만 쉬었다.) 멘델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식당바라크에 사람들이 모였다. 바라샤바, 소스노비치, 크라카우에서 온 유대인들은 말에 매혹되어 있었다. 말은 마법의 힘을 가져서 푸짐하게 차려진 사바트 식탁을 차려 내오게 하고 유대인 처녀의 사랑스러움, 팔레스타인 포도주와 건포도 케익의 향기, 잃어버린 아름다운 세계를 미술처럼 가져왔다. 말은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남자들을 창백하게 하고 그들을 변하게 하여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채찍질하며 목을 조르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언어의 대가, 이 마술사, 멘델 타이히만은 아마도 쉰 살쯤이고 키가 크고 마르고 몸 안에서는 열불을 간직한 타입이었는데 그들 앞의 긴 의자 위에 서서 말을 하고 제스처를 만들어냈다(7-8).

이와 반대로 수용소에서 죽음에 순응한 사람들은 바로 나치 수용소의 수감자들 중 소위 생명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무젤만 Muselmann”들로서 이들은 레비식 용어로는 ‘익사자’들을 대표한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이들에게 “신성한 불꽃은 이미 그들의 내부에서 꺼져버렸고 안이 텅 비어서 진실로 고통스러워 할 수도 없다. 그들을 살아 있다고 부르기가 망설여진다.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기조차 망설여진다”(136). “무젤만”은 원래는 어원상 무슬림을 뜻했으나 이 경우 나치 수용소의 살아나갈 기력을 잃은 자들을 은어로 부르는 말이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의 눈에도 이해나 접근이 불가능했던 “완벽한 타자”였고 “걸어 다니는 시신”, “미이라 인간”, “살아있는 죽은 자”였다(임홍배 206). 마지막 존재의지를 상실한 수감자들은 차라리 죽음의 상태에 더 가까운 비인간 무젤만이였다.

6. 수용소 이후에 계속 살아가기

수용소의 생존자들은 대체로 전쟁 말기에 독일의 부헨발트 수용소로 옮겨진다. 이들에게 이송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뛰다시피 이동함을 의미했고 이미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수감자들에게 이 행군은 많은 경우 죽음의 길을 의미했다. 수용소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남은 엘리 부자도 노쇠한 아버지는 결국 행군을 버텨내지 못했고 주인공에게는 한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다. 소련군에 의한 아우슈비츠에서의 해방, 혹은 미군에 의한 부헨발트에서의 해방은 전쟁의 승리자나 패배자의 역사서술과 달리 수감자들에게는 해방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희열로 채색되지도 않는다. 이제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계속 살아가는 것 weiter leben’ 혹은 ‘살아남기 Überleben’은 남은 생의 과제로 다가온다.

나치의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 생존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첫째는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 온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수백만 명에 달하던 독일의 유대인 수는 전후 2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집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한 결과였고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독일에 돌아왔더라도 잠시 경유하여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살기 위해 돌아온 유대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많은 이들은 그들의 과거를 숨겼다. 무엇보다도 독일-유대 가정의 경우 생존을 위해 침묵을 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수용소 생존 작가 중 유일하게 프리모 레비는 전쟁 전에 자신이 살던 이탈리아의 집에 계속 살았고 전후에 바로 자신의 체험 수기를 내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메리의 경우 60, 70년대에 방송작가로서 독일에서 일을 하였지만 벨기에에 망명자로서 거주하였

다. 반더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지만 반파시즘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건 동독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버렸다. 위젤의 경우 전후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클뤼거의 경우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클뤼거의 경우 드물게 독어독문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되고 작가가 되었지만 수용소에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어머니에게 학살자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는 그녀의 직업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작가들에게 독일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전쟁 후에도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었고 수용소의 언어였던 독일어로밖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은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의 죽음의 양식이다. 이들 생존 작가들은 늘 죽음이 닥칠 수 있는 수용소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행운을 가졌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여러 생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유죽음 Freitod’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죽음의 푸가』(*Die Todesfuga*)를 쓴 파울 첼란은 50세 생일이 되던 해에 세느 강에 몸을 던졌고, 전후 독일 사회를 계몽하려했던 장 아메리는 197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죽음을 택하였다. 또한 나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도 살아남아 처음으로 수용소 생활을 기록한 수기를 써서 자신의 삶을 전달했던 프리모 레비의 경우도 1987년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특히 아메리의 경우 ‘자살 自殺’에 해당하는 ‘Selbstmord’나 ‘Suizid’가 아닌 ‘Freitod’, 말 그대로 직역하면 ‘자유로운(혹은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저서를 남겼고 실제 이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레비는 죽음에 대한 미학적 표상이 총체적으로 파괴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죽음에 전적으로 내맡겨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인간적 성찰의 거리를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일상의 절박함이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자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후에는 자살에, 자살할

생각에 가까이 간 적이 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아니었다.”(312)고 말한다. 아메리는 수용소를 벗어나고 시간적 거리를 둔 이후에, 죽음과 대면을 할 수 있는 시기에서야 “[수용소를 버텨냈음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das Überstehen nicht überstehen”(130)을 『르피 혹은 붕괴』(*Lefeu oder Der Abbruch*)에서 토로하고 있다. 수용소에서의 체험은 이들에게 살아남았음이 기쁨만이 아니고 그 수치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다움과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게 만든 것이다.

7. 탈경계의 위험

최근 ‘탈’ 및 ‘초’ 운동은 경계 긋기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능성으로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는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과 비판과 더불어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 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고찰해보면 이방인 그룹인 유대인들이 유럽의 국민국가와 맺은 관계는 양가적이었던다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 이전까지 어디에서나 이방인 그룹으로서 안정된 거주권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 유대인은 계몽주의 이후 처음으로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법으로 시작되는 나치의 차별법은 이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였고 이들을 초국적, 무국적 유대인으로서 호명하였다. 이 새로운 경계 긋기의 문제는 이들에게 시민권의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시민권의 박탈과 더불어 인권과 생명권을 박탈한 데 있다. 수용소 생존 유대인의 수기는 이러한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의 기록이다.

이러한 유럽 역사는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보다 복합적으로 다

가온다. 한편으로 민족국가나 국민국가는 여전히 정체성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내세워지고 다른 한편 문화이론에서는 국제적 정세를 쫓아가며 민족국가의 위험성을 목청 높여 주장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에 대한 맥락적, 복합적 사고가 필요하듯 경계에 대해서도 맥락적, 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인식을 위하여 타자와 이분법적 사고가 필요하듯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경계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그어지고 지워지고 또 다시 그어지는데 이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경계 긋기가 행해지는가에 대한 인식, 새로운 경계 긋기가 가져오는 그늘에 대한 관심이며 동시에 어떠한 형태로 경계 긋기가 행해지더라도 기본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전제조건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이다. 나치 생존자들의 수기는 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이 되지 않을 때 경계의 해제는 자칭 가장 발달한 문명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 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카니즘으로」. 『지구지역사대의 문화경계』. 이화인문과학원 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72-98.
- 김용우. 「나치 집단수용소와 생명정치. 프리모 레비와 조르조 아감벤의 논의를 중심으로」. 『대구사학회』 98 (2010): 283-305.
- 데트레프 포이케르트. 『나치 시대의 일상사』. 김학이 옮김. 서울: 개마고원, 2003.
- 류은희. 「홀로코스트 문학에서의 기억과 역사: 루트 클뤼거의 『생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1 (2003): 49-69.

- 리처드 J. 번스타인,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김선욱 옮김. 서울: 아모르 문디, 2009.
- 막스 디몬트, 『유대의 역사』, 김용운 옮김. 서울: 대원사, 1990.
- 서경식,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울: 창비, 2006.
- 서길완, 「호모 사케르와 그것의 변형: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혈벗은 삶 그리고 캠프의 개념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13 (2008): 185-206.
- 서유정, 「독일인과 유대인의 새로운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성적 시도 - 루트 클뤼거, 『삶은 계속된다』」, 『독일문학』111 (2009): 172-189.
-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 안미현, 「과국의 철학과 원한의 수사」, 『혜세연구』28 (2009): 179-201.
- 엘리 위젤, 『나치스와 유대인』, 김범경 옮김. 서울: 한글, 1999.
- _____. 『이방인은 없다』, 정혜정 옮김. 서울: 산해, 2003.
- _____. 『나이트』, 김하락 옮김. 서울: 예담, 2007.
- 임홍배, 「아우슈비츠의 기억과 재현의 문제」, 『뫼히너와 현대문학』31 (2008): 203-227.
-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들의 극복을 위한 시도』, 안미현 옮김. 서울: 길, 2012.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 2008.
- 최성은, 「폴란드 수용소 문학(Literatura Obozowa)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의 미학적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1): 나치 수용소를 다룬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학』12 (2010): 265-314.
-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옮김. 서울: 살림, 2005.
-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옮김. 서울: 돌베개, 2007.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옮김. 서울: 한길사, 2002.
- Améry, Jean, *Lefeu oder Der Abbruch*, Stuttgart: Klett, 2007.
- _____. *Örtlichkeiten*, Stuttgart: Klett, 1980.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Fernliebe*, Berlin: Suhrkamp, 2011.
- Klüger, Ruth, *weiter leben. Eine Jugend*, München: dtv, 1994.
- Wander, Fred, *Der siebente Brunnen*, Neuauflage, München: dtv, 2006.

Works Cited

- Agamben, Giorgio. *Homo Sacer*. Trans. Pak Jin-U. Seoul: Saemulgyeol, 2008.
- Améry, Jean. *Joewa sokjoeui jeopyeon: jeongbokdanghan saramduelui geukbokuel wihan sido*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 Trans. An Mi-Hyeon. Seoul: Booksgil, 2012.
- _____. *Lefeu oder Der Abbruch*. Stuttgart: Klett, 2007.
- _____. *Örtlichkeiten*. Stuttgart: Klett, 1980.
- An Mi-Hyeon. “Pagukui cheolhakgwa wonhanui susa” [Philosophie der Katastrophe und Rhetorik des Ressentiments]. *Hesse Yeongu* [Hesse-Forschung] 28 (2009): 179-201.
-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Trans. Cha Won Hyun, Chae Ho Seok, Bae Gae Hwa. Seoul: Hyunsilmunhwa Yeongu, 2004.
- Arendt, Hannah. *Inganui jogeon* [The Human Condition]. Trans. Lee Jin-U, Tae Jeong-Ho. Seoul: Hangilsa, 2002.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Fernliebe*. Berlin: Suhrkamp, 2011.
- Bernstein, Richard J. *Hanna Arendtwa yudaein munje* [Hannah Arendt and the Jewish Question]. Trans. Gim Seon-Uk. Seoul: Amoreumundi, 2009.
- Choe, Seong-Eun. “Poland suyongso munhake natanan yeoksajeok hyeonsilui mihakjeok guhyeon bangsike gwanhan yeongu(1): Nazi suyongsoreul darun munhak jakpumeul jungsimeuro” [A Study of Aesthetic Expression form of Historical Realities in the Literature of the Concentration Camps in Poland]. *Dongyureopbalkanhak* [Journal of Central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12 (2010): 265-314.
- Dimont, Max. *Judeaui yeoksa* [Jews, God and History]. Trans. Gim Yong-Un. Seoul: Daewonsa, 1990.
- Gim, Su-Hwan. “Gyeonggye’ gaenyeome daehan munhwagihohakjeok jeopgeun: gubyeoui wonrieseo gyohwanui mechanismeuro”. [Cultural Semiotic Approach to The Notion of ‘Boundary’]. *Jigujiyeksidaewi munhwageonggye* [Cultural Boundary in the Glocal Period]. E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9. 272-98.
- Gim, Yong-U. “Nazi jipdansuyongsowa saengmyeong jeongchi. Primo Leviwa Giorgio Agambenui nonuireul jungsimeuro”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Biopolitics: Primo Levi and Giorgio Agamben on Auschwitz]. *Daegusahak* [Historical Studies in Daegu] 98 (2010): 283-305.

-
- Im, Hong-Bae. "Auschwitzui Geokgwa jaehyeonui munje" [Aporien der Repräsentation beim Beschreiben der Auschwitz-Erinnerungen - in besonderen Bezug auf die Zeugnisse der Überlebenden]. *Bwihineowa hyeondaemunhak* [Büchner und Moderne Literatur] 31 (2008): 203-27.
- Johnson, Paul. *Yudaeinui yeoksa* [A History of the Jews]. Trans. Gim Han-Seong. Seoul: Sallimbooks, 2005.
- Klüger, Ruth. *weiter leben. Eine Jugend*. München: dtv, 1994.
- Levi, Primo. *Igeosi inganinga* [If This Is a Man and the Truce]. Trans. Lee Hyeon-Gyeong. Seoul: Dolbegae, 2007.
- Peukert, Detlev. *Nazi sidaeui ilsangsa* [Volksgenossen und Gemeinschaftsfremde]. Trans. Gim Hak-I. Seoul: Kaema, 2003.
- Ryu, Eun-Hui. "Holocaust munhakeseoui geokgwa yeoksa: Ruth Klugerui 『saengjonui munje』 reul jungsimuro" [Erinnerung und Geschichte in der Holocaust-Literatur - Im Hinblick auf Ruth Klügers *weiter leben*]. *Dokileomunhak*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21 (2003): 49-69.
- Seo, Gyeong-Sik. *Sidaeui jeungeonja Primo Levireul chajaseo* [Looking for the Witness of this Period, Primo Levi]. Trans. Pak Gwang-Hyeon. Seoul: Changbi, 2006.
- Seo, Gil-Wan. "Homo Sacerwa geugeosui byeonhyeong: Agambenui Homo Sacer, heolbeoseun sam geurigo campui gaenyeomeul jungsimuro" [Homo Sacer and Its Transformation]. *Bipyunggwawa Iron* [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13 (2008): 185-206.
- Seo Yu-Jeong. "Dokilingwa yutaeinui saeroun daehwa ganeungseongeul mosaekhaneun yeoseongjeok sido - Ruth Kluger, 『Sameun gyesokdoenda』" [Weiblicher Versuch über neue Möglichkeiten eines deutschjüdischen Gesprächs-Ruth Klügers *weiter leben. Eine Jugend*]. *Dokilmunhak* [Deutsche Literatur] 111 (2009): 172-89.
- Wander, Fred. *Der siebente Brunnen*, Neuauflage. München: dtv, 2006.
- Wiesel, Elie. *Naziswa yudaein* [L'aube Le jour]. Trans. Gim Beom-Gyeong. Seoul: Hangeul, 1999.
- _____. *Ibagineun eopda* [Conversation with Elie Wiesel]. Trans. Jeong Hye-Jeong. Seoul: Sanhae, 2003.
- _____. *Nait* [La Nuit]. Trans. Kim Harak. Seoul: Yedam, 2007.

The Life and Death of Jews as Transnational Strangers: Comparative Textual Analyses of Nazi Concentration Camp Survivors

CHOI Y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the meaning and power of the national, ethnic and cultural boundaries are getting blurred and *trans*-movements are becoming more popular. The new movements are evaluated posi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and emancipation. This paper, however, points to another aspect of these movements: the discontent and anxiety of a *trans*-movement drawing upon the darkest historical examples, written by survivors of Nazi concentration camps. The history of European Jews can be regarded as a history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e national state in the spirit of humanism and enlightenment provided citizenship to Jews, who had previously lived either as wandering Jews or as ghetto dwellers, in both cases just as excluded strangers. After 150 years of assimilation and inclusion, to be considered transnational Jews, with the emphasis particularly upon “Jews,” the label applied by the Nazis, sounded for the Jews somewhat odd, even exclusionary, as was in fact intended. The actual exclusion process enforced by the Nazis had to be executed not only emotionally but also systematically and legally. The texts of survivors of Nazi concentration camps report on how the Jews reacted to this process of exclusion from human boundaries at that time and how they lived an unprotected life as homo sacer in the concentration camps. The texts show *ex negativo*, how risky transnational movements could be without a correspon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We see that this lesson is still valid when we look at the new shadow zones of globalization, such as refugee villages. The dangers confronting transnational movements are analyzed in the following texts: *La Nuit* (Elie Wiesel) and *Se questo è un uomo* (Primo Levi), both in translation; and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Jean Améry), *Der siebente Brunnen* (Fred Wander), and *weiter leben* (Ruth Klüger), all three in the original German.

Keywords : transnational stranger, national state, ‘Jews’, Nazi concentration Camp, survivals literature (초국가적 이방인, 국민국가, ‘유대인’, 나치 강제수용소, 생존자 문학)

Received: 5 April 2013
Reviewed: 5 May 2013
Accepted: 10 May 2013